

KBO 새 총재에 정운찬 전 총리

## 소문난 야구광 야구수장 됐네



1 정운찬 전 총리는 스스로 '야구바보'라 칭하며 팬의 시각에서 쓴 야구서적을 집필할 정도의 열혈 야구 마니아로 유명하다.



2 서울대학교 교수시절 친선 소프트볼 경기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3 잠실구장 관람석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두산의 팬으로도 유명하다.



KBO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대 총재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스포츠동아 DB

이사회 만장일치 추대...내주 총회서 결정  
학창시절부터 야구 마니아...야구책도 출간  
여권과도 원만...KBO리그 산업화 큰 기대



정운찬(70) 전 국무총리가 제22대 KBO 총재로 추대됐다. KBO는 29일 2017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구본능(68) 총재의 후임으로 정 전 총리를 총회(구단주 모임)에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KBO 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출'에 따르면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삼성 김동환 대표(구본능 총재에게 의결권 위임)를 제외한 전 구단 대표가 참석했는데, 정 전 총리가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았다. 물론 아직 정 전 총리가

KBO 새 총재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단주 모임인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요식 절차다. 이미 구 총재가 물밑 작업을 통해 정 전 총리의 의사는 물론 10개 구단 구단주들의 동의를 받은 뒤 이날 이사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총회는 조만간 서면결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주쯤엔 최종적으로 새 총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 ●정운찬 새 총재 추천, 왜?

1998년 말 각 구단에서 돌아가면서 총재를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박용오 OB 구단주가 민선 총재(12~14대) 시대를 열었고, 범 LG가인 회성그룹 구본능 회장이 2011년 8월부터 총재(19~21대) 자리에 오른 것도 이런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구 총재가 차기 총재를 물색하기 위해 10개 구단 구단주들을 만났지만 모두 고사하면서 외부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여권의 몇몇 유력 정치인도 물

망에 올랐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부터 KBO 총재 후보감으로 평가받던 '정운찬 카드'가 급부상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 현재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학창 시절부터 야구에 매료된 그는 평소 시간이 날 때마다 야구장을 찾아 야구를 즐겼다. 메이저리그 경기 시구를 하기도 했다. 2013년 엔 야구 에세이 '야구예찬'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현재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쪽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O리그가 진정한 프로화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산업화의 길로 들어설 필요가 있다.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식견, 역대 총재 중 최초의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 여기에 정치력까지 갖춘 인물하기에 10개 구단은 만장일치로 정 전 총리를 새 총재로 추천했다.

▶관련기사 2면 | 이재국 전문가 keystone@donga.com



울산현대 김승준(왼쪽)이 29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2017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에서 선취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

## 김승준·이종호 연속골 울산, 부산 잡고 우승 점

FA컵 결승1차전 2-1...2차전 0-1로 패해도 우승



KEB 하나은행  
2017 FA CUP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울산 현대가 창단 이후 첫 FA컵 우승에 바짝 다가갔다. 울산은 29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와의 '2017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 원정경기에서 김승준과 이종호의 연속 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울산은 12월 3일 오후 1시30분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하는 결승 2차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대회 우승컵을 가져간다.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2차전을 0-1로 패해도 창단 후 첫 FA컵 정상을 밟을 수 있다.

울산은 주전들의 피로누적과 부상 등으로 1.5군을 가동한 부산을 상대로 베스트 전력으로 나섰다. 다만 측면 공격수 오르사는 교체명단에 포함시켰다.

김도훈(47) 감독은 "후반 히든카드로 오르사를 남겼다. 전반은 짧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하기 위해 기술이 좋은 선수들을 먼저 기용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경기초반 기선을 잡진 못했다. 부산이 미드필드에 기동력과 활동량이 좋은 선수들을 투입해 울산이 허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실패했다. 대등한 싸움이 계속되던 전반 19분 울산이 행운이 동반된 선제골을 잡아냈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이종호가 문전으로 땅볼 크로스를 했다. 볼을 잡은 김승준은 재차 돌파를 시도했다. 김승준이 골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오른쪽으로 슈팅을 시도했다. 슈팅각도가 거의 없었지만 김승준이 찬 볼은 부산 골키퍼와 골포스트 사이를 통과해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행운이 따랐다.

김승준의 선제골 이후 울산은 2차례 좋은 추가골 찬스를 맞았지만 한 번은 크로스를 벵기는 등 득점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울산은 후반 8분 히든카드 오르사를 투입했다. 이 선택이 적중했다. 오르사는 후반 12분 역습상황에서 수비수 사이를 파고드는 이종호의 움직임에 확인하며 동페스를 시도했다. 스피드를 앞세운 이종호는 빈 공간을 파고들며 골키퍼와 1대1로 맞섰고, 결국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부산은 미드필드 싸움에서 대등하게 맞섰지만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외곽까지 볼을 잘 운반하고도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인방에서 무너졌다. 이정철, 임유환, 이재권 등 승강 플레이오프로 지친 주전들을 쉬게 하며 최대한 버티려던 부산은 전반 35분 한지호가 부상을 당해 뜻하지 않은 교체카드를 활용하는 등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후반 40분 터진 이동준의 만회골로 격차를 줄이는데 만족해야 했다.

▶관련기사 6면

부산 |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뉴스디자이너 | 김현호 기자

D-11 CMS 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  
12월11일 오전 11시30분 포시즌스호텔서울 ▶8면

1+1 39,800원

춥고 긴~겨울  
"농치면 후회하는 점퍼"

목부분 이중패딩처리

No.1 No.2 No.3

No.1 No.4 No.5 No.6

향이리패턴 4온스 충전재삽입  
바둑판패턴 3온스 충전재삽입

동계용 골프 누빔점퍼 2점 39,800원!!

강력한 보온력으로 라운드시 편안함을 극대화 하는 점퍼!

편안하고 부담없이 착용하는 점퍼 출시!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다. (주)원프로토는 실용성과 활동성이 뛰어난 점퍼를 출시해 화제다. 골프나 레포츠 및 겨울 활동에 있어 날씨로 인해 활동성에 제약받으면 안된다. 경량으로 제작해 가벼우면서도 활동성이 뛰어난 점퍼를 착용하는건 겨울 활동에 있어서 필수가 된다.

골프 OK! 아웃도어 OK! 평상복 OK! 라운딩 할때만 입는 자켓이라면 큰 오산이다. 라운딩용 자켓은 활동성에서 뛰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아웃도어 활동용은 물론 근

무복, 평상복으로 착용해도 손색이 없다. 또한 캐주얼이나 정장바지에든 환상의 콤플렉스를 자랑하며 가벼운 착용감으로 찬바람 속에서 최적의 활동성을 자랑한다.

다양한 색상과 두 가지 패턴 두 가지 종류로 제작한 점퍼는 한아리 패턴과 바둑판 패턴으로 디자인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그날그날 골라 입을 재미가 있다. 두종류의 패턴은 두께 또한 조금씩 달라 날씨의 상황에 맞게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어떠한 아웃도어 활동이나 평상복으로도 착용이 가능하다. 너무나

금액으로 행사를 한다고 우습게 보면 큰 오산이다 점퍼로서 활용도는 물론이거니와 윈드브레이크 대응으로도 으뜸인 점퍼인 것이다.

활동성과 입는 분의 품격까지 생각한 점퍼 업체 압축 누빔 패턴으로 입는 순간 살아나는 핏감이 좋으며 따뜻하며 활동성을 자랑한다. 골퍼는 물론 평상복 다른 아웃도어 활동시에 착용가능한 전천후 점퍼라 하겠다. 믿을 수 있는 기업 원프로토사에서 런칭해 독점으로 판매한다. 제품 불만족 시 100% 환불을 약속한다 한다.

• 사이즈 95 / 100 / 105 • 2점 128,000원 → 39,800원 • 3점 192,000원 → 59,000원  
(배송비 2,500원 고객부담, 3점이상 무료배송)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토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